앞 뒤로 아파트 신축 … 옆에선 학교 공사 … 위엔 전투기 '사면초가'

"공사판 학교 … 수업 자체가 안돼요"

광주 첨단지구 빛고을고 학생들의 아우성

소음에 수십차례 수업 끊겨
분진에 창문도 못 열어
전투기 뜨면 대화도 불가능
차량사고에 학생들 입원까지

경제난 아파트 공사 늦어져
학교 먼저 개교해 문제
광주시의회 현장조사 나서

"전투기 굉음, 덤프트럭 소리,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대로 수업도 안돼요. 한 시간에 10여 차례는 수업이 끊기죠. 선생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소음과 먼지 때문에 교실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어요. 환기를 못하다 보니 특히 남자반은 땀냄새 때문에 죽을 맛이죠."

광주시 북구 첨단2지구 빛고을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이 학교 주변 공사판 소음과 먼지 때문에 아우성이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을 들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들이 9일 오전 11시 이 학교를 찾았다. 학교를 빙 둘러 사방이 공사판이었다. 정면과 왼쪽·뒤쪽은 아파트 공사가, 오른쪽은 중학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인근에는 또 다른 아파트들을 짓고 있다.

여기에 시시때때로 날아드는 전투기 굉음은 옆 사람과의 대화조차 막았다.

3학년 이진용 군은 "전투기 굉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다"며 "만약 영어듣기시험 시간에 전투기가 뜨면 어떻게 할 건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교실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교실의 에어컨을 1교시부터 가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창문을 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교시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며 "에너지절약 압박이 심한데다 학교운영비는 한정돼 있어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주변이 공사판이다보니 불법주정차도 난무했다. 학교 정문 앞은 물론 인근엔 2중3중 겹쳐 불법주차가 돼 있다. 등·하교 땐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지난달 12일 오전 7시35분께 등교 시간에 통학버스가 불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22명의 학생이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 중 10여명이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4명은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아직까지도 1명은 병원치료 중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학부모들 10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인 불법주정차 강력단속뿐만 아니라 시험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소음 심한 공사 주말·점심시간 활용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부모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과 뿌연 먼지 등 공사판의 어지러운 교육환경으로 아이들은 학습권과 안전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히 입시 등으로 예민한 때에 학교 주변 환경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더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학습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오전 10시30분 학교에서 광주시청, 북구청, 시공사,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학교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빛고을고 설립은 첨단2지구 개발에 맞춰 계획했지만 경제여건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늦춰지는 바람에 학교가 먼저 개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빛고을고등학교(점선 부분)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전·후는 물론 사면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수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내버스에 행패 만취 의사 4명 모두 입건…검찰에 송치

서부경찰, 업무방해 혐의

경찰이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의사들〈광주일보 6월26일 6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키로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만취한 채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시내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광주 모 병원 의사 박모(37)씨 등 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4일 밤 10시50분께 윤모(37)씨가 운전하던 19번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발로 차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윤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등 20여분간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한 혐의다. 이들의 행패로 당시 늦은 밤 귀갓길에 올랐던 승객 10여명이 20여분 간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들 행동으로 버스 운행이 20여 분간 중단된 점에 주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음란물 게시·유포자 잡고보니 초등학생

광주경찰 15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연예인 합성사진,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모 초등학교 학생 송모(12·6학년)군 등 10대 8명과 김모(52)씨 등 성인 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성인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성교육 등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송군 등 10대 5명은 지난 3월 초 '19동인지 19애니' 등 4개 인터넷 카페에서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53명의 합성 음란사진 68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군이 개설한 '19동인지…'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4367명이나 됐고 이들 중 60% 가량은 10대였다.

나머지 성인·청소년 10명은 스마트폰 친구 찾기 어플이나 채팅 어플인 '카톡', '틱톡'을 이용해 국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영상 1479개 가운데 대부분은 초·중·고 여학생이 직접 촬영한 1~5분가량의 노출 영상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왜곡, 전라도 비하 댓글 국정원 직원 광주지검에 고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한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을 오는 10일 광주지검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좌익효수'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한 댓글을 단 것은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10일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시민소송단 51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8856〉 김종두

70대 할머니 열차 치여 숨져

9일 오전 8시10분께 광양시 성황동 광양역에서 황길역 방향 9㎞ 지점 철로에서 김모(여·72)씨가 화물열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이날 새벽 0시께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된 상태로, 김씨 거주지에서 약 10㎞가량 떨어진 곳에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치매를 앓던 김씨가 집을 나간 뒤 길을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조폭 "호프집서 왜 술 안줘?" 행패

쌍나팔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을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조직폭력배가 경찰 서행.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K파 행동대원 박모(48)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호프집에서 주인 허모(여·47)씨에게 "×××야. 네가 이 가게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30분간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홀로 허씨의 가게에 갔다가 "술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주인이 술을 주지 않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선거 때 금품수수 혐의 …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 9일 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 L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9일 정치권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L씨는 2010년 4·11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1억여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L씨는 "누구한테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문 구청장이 다른 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냈고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은 했지만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김광준 전 검사 징역 7년 선고

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10억여원에 이르는 여러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유 부사장이 공여한 5억4000만원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3억8000여만원을 수뢰 액수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6월과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